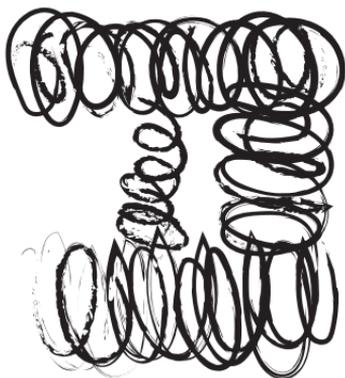


똑똑



&

활짝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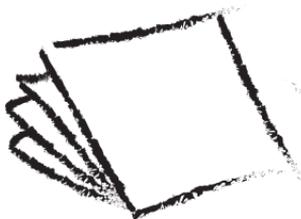


책



책

책



똑똑

&

활짝학교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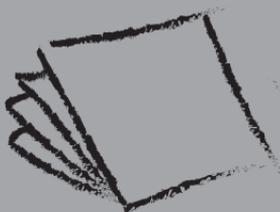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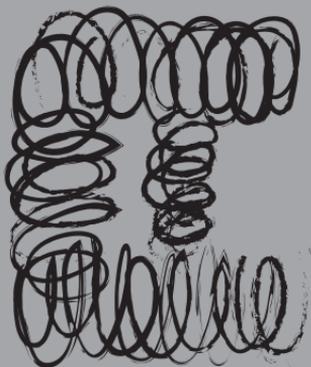
책

책

**2022**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 활동 기록





‘책책책’은



/ 08

준비하며 했던  
질문 3가지



/ 016

사업과정



/ 026

구조와  
협업관계도



/ 042

기록과 공유



/ 046

052 /



뚝뚝학교

076 /



활짝학교

092 /



통합 공유회

110 /



디자인

126 /



축적되는 경험이  
되기 위한 제안

08

4

‘책책책’은

# 똑똑, 활짝학교의 기록이자 기록물 안내서

2022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를 구성하는  
두 개의 학교(똑똑, 활짝)에 관한 기록이자,  
온라인(노션)에 구축된 더 깊고 다양하게 남겨진  
기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안내서이기도  
하다.

# 똑똑, 활짝학교를 돌아보는 행위

의례적인 수사의 문장들로 가득한, 결과와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문화기획, 문화적 프로젝트로서 어떤 생각과 과정, 방법들이 다뤄졌는지, 실행의 과정과 전, 후 등 일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얻은 문화적 통찰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 스스로 되짚는 행위가 꼭 필요하다.

# 똑똑, 활짝학교가 수행한 질문의 공유

문화기획, 프로젝트의 의미와 가치는 그 기획이 다루는 질문의 역량에 좌우된다.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경기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은 어떻게 설정하고 고려할 것인지, 지금, 그리고 향후 공공적으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며 부단히 애써야 할 문화예술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을 향해 좌표를 구성해야 하는가 등이다.

똑똑, 활짝학교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질문들이 ‘책책책’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 똑똑, 활짝학교가 기획된 과정의 정보와 자료 제공

아마도 이 책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관련된 일을 하는, 하고자 하는 이들이지 않을까?

그들에게 하나의 문화기획으로 이 프로젝트의  
내면이라 할 수 있는 기획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도모하는 일에 작은 실마리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 역시 ‘책책책’의 목적 중 하나이다.

## 조금 가볍게 들춰봤으면

가끔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 집 초등 3학년인 딸아이의 입에 아폴로가 물려있곤 한다. 어느 날에는 친구들과 몰려와 갈색의 작은 책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무슨 은밀한 이야기와 의례인 양 서로의 얼굴을 보며 책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책을 한 번에 펼쳐 그 페이지의 내용에 온 신경을 쓰며 키득거린다. 일명 마법의 고민해결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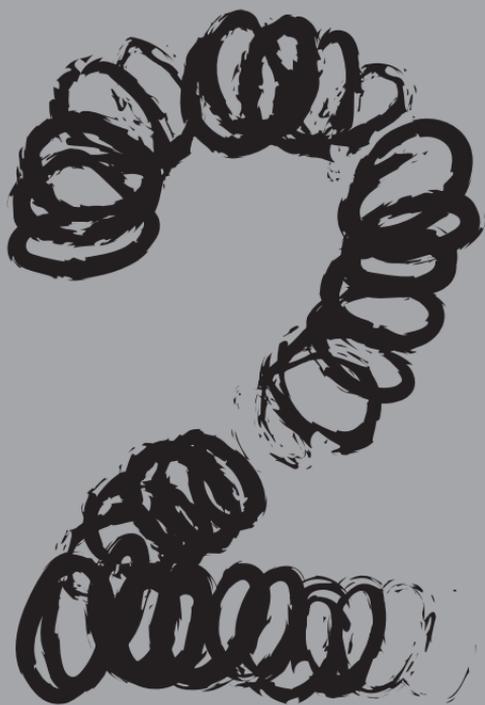
세상이 바뀌어 인공지능 어찌고 하는 시대라지만 40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나의 이야기, 일상과 사물, 군것질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게 새삼 놀랍고 우습다.

‘책책책’이 이것 들만큼  
사람들(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아무 곳이나 펼쳐  
거기부터, 거기만 읽어도 된다.

016



**준비하며 했던**

---

**질문 3가지**

---

## Q.1



광역 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에서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A. 지역분권, 기초단위 문화자치의 방향 속에서, 광역 재단의 역할과 방향성을 탐색하는 태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장소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가 수행될 때, 광역 재단은 해당 기초지역에서 운영되는 유사사업이나 중복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살피는 일을 기획의 과정에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

B. 나아가, 기초지역의 사업에서 광역단위의 협업 지점, 중단기적으로 협업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를 관찰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문화도시 준비 및 지정 도시의 경우, 각 지자체 단위의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사 사업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또는 겉에서 보이는 것만이 아닌 유사한 문제의식과 실천 속에서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와 연결되는 새로운 이슈가 있는가를 살피어,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의 역할을 찾는 것과 같다.

C. 이를 실행적으로 반영한다는 말은, 기초단위의 행정 또는 민간 주체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해당 지역의 주체들의 주도성과 성장은 물론, 프로그램의 시민단위, 생활단위의 밀착력을 높여, 시민들의 참여를 더 수월하고 용이하게 한다.

## Q.2



021

**생활문화 활동가는 누구이고  
그들을 위한 학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A.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존재가 누구이고 배움이 무엇인가’라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그래서 쉽게 답하지 않으려 애쓰는 게 필요하다.

B. 또한 ‘프로젝트’라는 측면, 즉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그러나 미래를 향해(pro-) 던지는 (-jacere) 불확실한 실천이라는 문화적 특징을 감안할 때, ‘누구’와 ‘학교’를 정의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오히려 소모적일 수 있다(경험이 역량으로 쌓이기 어렵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C. 다만, 문화 제도라는 행정 양식과 언어들이 과잉인 실천 환경 속에서 활동가는 이러한 환경과 거리를 두며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추구’는 완성이 아닌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태도로서, ‘학교’는 이들이 무언가를 도모하고 실현할 수 있는 유무형의 토대로서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 Q.3

023



담론화되지 않은 생활문화,  
어떤 맥락으로 의미의 구체성을  
탐색할 수 있을까?

A. Q1, Q2 앞의 두 질문에 이어, 프로젝트로서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의 방식과 구조를 의미 있게 설계하는 것은 올해 중요한 과제가 된다.

B. 거칠게나마 몇 가지를 전제할 수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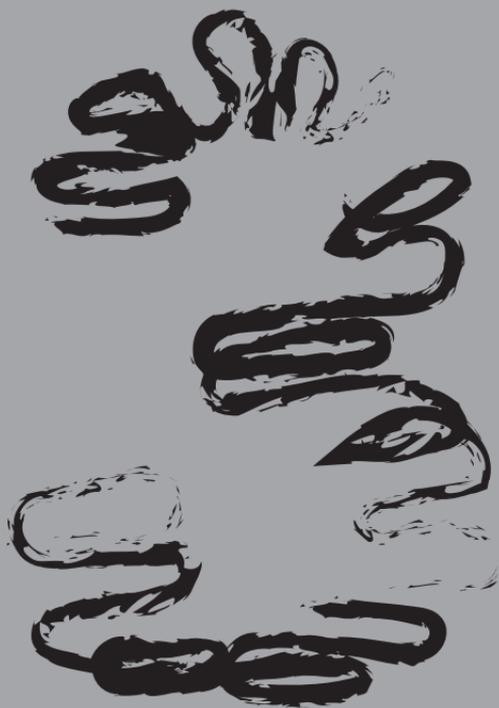
① 전문가 주도의, 강의 방식 지양한다.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지시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다양한 방식과 언어, 경험으로 알아챌 수 있도록 한다.

② 기존에 이뤄지고 있는 ‘양성과정’의 프로그램들이 주목했던 ‘나에 집중하기, 나의 욕망의 발견과 추구’라는 말 다음을 구상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즉 내가 도구나 수단이 되지 않으면서 나의 욕구와 바람, 존재가 사회적 가치, 사회적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탐색하고 찾는 과정으로서의 배움 말이다.

③ 이미 짜인, 제시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동적 방식을 넘어,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기 질문을 바탕으로 또는 질문의 생성을 병행하며 배움의 방법을 스스로 설계하여, 참여자로 하여금 생활문화의 이해와 실천의 감각이 각자에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적 통찰 등이다.

026



# 사업과정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의 구조를 설계, 기획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원주체(경기문화재단)와 현장의 협업 관계 설정과 이의 당사자인 협업 주체, ‘**질문을 품고 있는 협업 주체를 발견하는 일**’이었다.

늘 그렇듯 사람을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 도모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없었지만, 질문을 품은 이들은 대체로 뭘 하든 준비가 되어있다. 현실적으로 논의의 시간을 단축하며, 서로의 힘을 신뢰하고, 실행하며 논의할 수 있는 ‘태도로서의 역량’을 가진 이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이 태도로서의 역량은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의 목표로서, 이 과정을 통해 배양하고, 깊고, 넓게 하고자 하는 시민의 문화적 역량, 시민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기획의 역량의 방향이다, 또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 문제정의와 제안,

## 주어진 자원의 확인 (8월~9월)

029

- ✔ 2022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의 방향성, 의미, 역할에 대한 논의와 제안
- ✔ 많지 않은 시간, 확보된 지역 협업 주체 부재, 똑똑-활짝 두 개의 학교를 동시에 기획 운영해야 하는 부담
- ✔ 활짝학교의 형식 정해져 있다는 것(2박 3일의 일시적 방식)과 주 대상자들이 가장 바쁜 시기로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
- ✔ 적정한 예산, 기획자에게 자유로운 권한 부여,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과의 원활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거부감 없다는 것은 큰 장점

# 1

## 각 지역의 똑똑학교





















# 3

## 통합 공유회

- 똑똑학교와 활짝학교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배움 여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에 궁금함을 가져보는 자리
- 2022년 11월 24일(목) 오전 11시~오후 3시, 경기상상캠퍼스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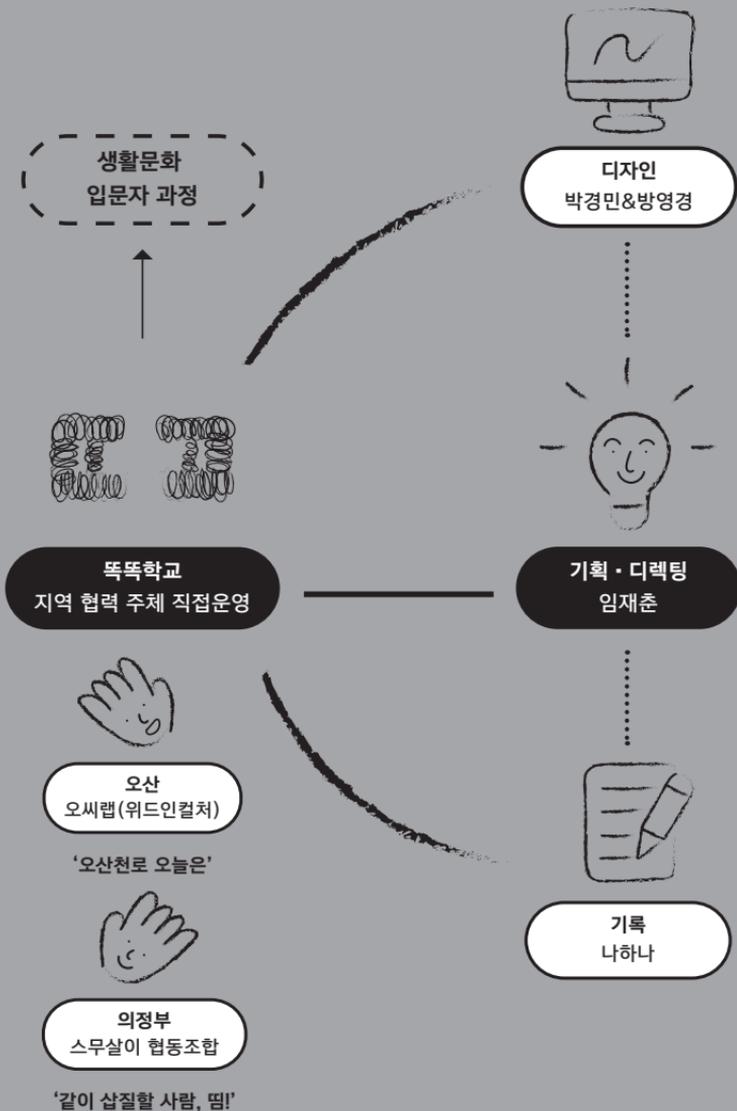
**구조와**  

---

**협업관계도**  

---

# 2022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



생활문화 활동가  
재교육 · 네트워킹



사업과정 전반 실무 · 행정지원  
경기상상캠퍼스 생활문화팀

활짝학교  
부여 지역 실무 협력



협동조합 주인  
노재정 & 안경희

참여자 11명의  
'각자 떠나는 워크숍'

046

5

**기록과 공유**

---



오산 “오산천로 오늘은” 팀은 네이버 블로그, 의정부  
 “같이 삽질할 사람 땀!” 팀은 노선을 활용하여  
 기록했고 이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오산 <오산천로 오늘은>

## 활짝학교

활짝학교는 리서치, 기획, 실행의 과정을 거쳐 참여자 스스로 본인에게 필요한 워크숍을 만들어 진행했다. 교육자와 학습자로 구성된 아카데미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참여자 간 배움과 학습이 가능한 설계가 필요했다.

서로의 고민과 문제의식,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언제나 확인하고 서로 참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노션\(https://notion.so\)](https://notion.so)”을 적극 활용했다.

노션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 협업 툴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노션에 참여자들 스스로 본인의 프로젝트를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하고 공개하여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했다.



활짝학교 참여자들의 기록



052



**똑똑학교**

---

생활문화가 궁극한 입문자(도민, 시민)에게 지식적, 경험적 이해의 폭을 넓히며 향후 생활문화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과정으로, 의정부와 오산 2개의 지역 협력 주체가 각각 직접 운영했다.

# 스무살이 협동조합의

## 의정부와 생활문화

055

경기도 권역별 대표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기에 적절하지도 않지만, 의정부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스무살이 협동조합의 존재나 그들의 기획은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사회 문화적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청년들의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연함은 동시대의 삶이 생동할 수 있는 기반이나 터전으로서 경기북부, 의정부라는 지역사회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오랫동안 누적된 결핍을 가늠해 보게 된다.

이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질문 덕분에 똑똑학교의 생활문화는 본의 아니게 중년 여성들이 삶이 중심이 된 현실을 넘어서의 가능성, 단순 취향과 취미라는

말초적 자극 너머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법정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된 의정부는 이런 주체들과 이미 맺은 관계성이 긴밀하다.

스무살이 협동조합의 입장에서 지역 안에서 정책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적 계기나 기반, 동기가 있다는 점은 지역살이, 마을살이의 비전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허나 그러한 토대가 서로를 이용하거나 소비시킬 수 있는 위험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똑똑학교와 같은 광역단위의 정책기획들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기성세대나 제도(대체로 제도는 속성상 기성세대의 특징을 따른다.)의 단기간의 가시적이며, 다수를 만족시키는 대중적 성과를 생산하고 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는 기초지역으로 갈수록 더하다.

경기문화재단과 같이 이미 문화정책이나 문화기획의 공공적 측면이 갖는 특징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광역지원 기관들이 기초단위의 문화환경에서 풀기 어려운 ‘실험적 작업’, ‘과정 중심의 성과 정의가 새롭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는 작업’, ‘과정의 속도, 성과의 속도를 지원 기관과 현장 주체가 협의하며 조율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의 지원체계나 구조를 열어주는 것은 향후 지역분권이라는 정책 지형의 변화 속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이 의정부 똑똑학교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다.

# 오씨랩(위드인컬처)의

## 오산과 생활문화

오씨랩(위드인컬처)은 문화정책과 공공적 예술활동,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등의 공공적 문화예술씬(scene)에서 잘 호명되지 않았던 지역 중 하나인 오산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눈에겨보았다.

인구 약 24만의 중소도시로, 수원, 화성,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그 즈음의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다는 점이 어쩌면 오산의 도시 정체성이나 문화적 특징과 환경에 여러 측면에서의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해 본다.

문화와 예술의 시선, 공공적 예술 실천의 관점에서 오산의 안팎, 경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적 프리즘으로서의 문화기획과 문화적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는 것으로의 욕구와 필요성,

절실함은 문화 주체로서 발견되고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오씨랩(위드인컬처)은 똑똑학교를 통해 시민다움을 묻는다. 크고 작은 이전의 경험들 속에서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에 걸렸던 질문이다.

평생교육, 마을, 사회적경제, 문화도시 등 분야는 달라도 시민의 참여, 시민의 주도성이 정책의 상식이 된 지금, 여러 문화의 제도적 사업구조에서 시민을 만나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문화적 주체로서 시민이 된다는 것을 둘러싼 태도와 방식, 인식에 대한 고민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기획자나 활동가들은 시민들에게 저마다의 삶에 이미 있는 문화에 대해 묻기도 하고,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혹은 들어보았는지 하며 건네었던 궁금한 말들은 스스로에게도 해당사항이 된다. 삶과 일상에서 보통 시민의 문화적인 순간과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일은 질문자에게 삶의 문화로서 자신의 일상과 관계를 들춰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여전히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했다는 스스로의 평가들은  
의미심장하다. 알게 되면, 알기 전처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꼭 필요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접근하는 일의 방법과  
과정도 그 가치를 닦기 위해 어떠한가 하는가를 아는  
것, 그렇게 행하고자 애쓰는 태도를 문화적  
역량이라고 칭하지 않았던가.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처음 들었다던  
오씨랩(위드인컬처)의 활동가들이 어느새 커다란  
생활문화의 문 앞에 도달하여 ‘이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나요? 무척 궁금해졌습니다.’라고 묻고  
있다.

이정부

같이 삼질할 사람,

\* 땀이 뭐냐면,

a : 같이 삼질할 사람~?!

b : 나~! 땀!

!땀

061



#뚝뚝학교 ①

## What 무엇을

누군가에게는 삽질, 뽀질, 쓸모없는 짓이라고 불렸던 무언가를 진행하며 그동안의 생활문화를 돌아보고 새롭게 실행한다.

## Who 누가

- 협력 주체 : 스무살이 협동조합

‘스무살이’는 ‘2030세대의 마을살이’를 의미. 의정부에서 자라며 청소년기를 보낸 청년들이 사회적 활동의 자리로서 의정부를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이곳에서 자립하며 살아가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 협동조합

<https://smsecoop.modoo.at/>

- 참여자 : 의정부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 6인

## When 언제

2022년 10월-12월

## Where 어디서

청년공간 작당 & 의정부 지역

## How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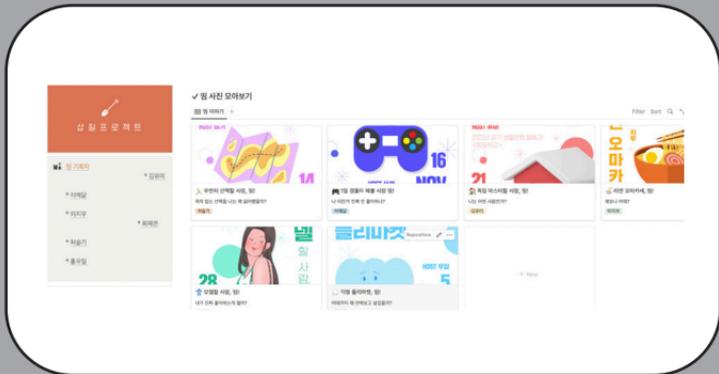
6명의 참여자가 각자의 삽질을 선정한 후, 매회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본인의 삽질을 함께 경험하기 위한 기획을 한다. 모두가 기획자&참여자가 되는 경험을 통해 각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존중하고, 이야기하고 실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6인의 삽질>

- ① 우연히 산책할 사람, 땀! ② 1일 겐들이 해볼 사람, 땀! ③ 독립마스터 할 사람, 땀!
- ④ 라면 오마카세, 땀! ⑤ 모델 할 사람, 땀! ⑥ 걱정폴리마켓, 땀!



https://notion.so



## ◎ 관찰자의 시선

노션(notion.so)을 통해 모두에게 공유되는 삽질. 이들 여섯 명은 삽질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노션에 기록한다.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플랫폼을 꼼꼼하게 세팅한 스무살이 협동조합 기획자들의 센스가 돋보였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유된 꼼꼼한 기록은 지나간 삽질을 회고하기에도 유용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새로운 삽질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065



똑똑학교 | 같이 삼질할 사람, 땀!



### ◎ 관찰자의 시선

6개 삽질의 기획에 맞게 공간의 구성도 함께 달라졌다. 삽질 호스트의 기획의도가 촘촘하게 녹아든 공간은 참여하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함께 삽질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 ◎ 관찰자의 시선

모임마다 호스트와 게스트가 번갈아가며 바뀌면서 모두가 기획자가 되고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참여한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기획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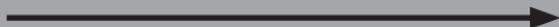
쓸모없어 보이는 삽질도 꾸준히, 열심히 친구와 함께 한다면 의미가 만들어진다. 진지한 삽질 후,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는 모습은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가는 과정으로 보였다.

생활문화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끈끈한 ‘동네친구’를 만드는 여정이 아닐까?

활동 자세히 보기 ↙



# 어산책의 어법이야!



#뚝뚝학교 ②

어  
산

## What 무엇을

오산 시민들의 주요한 생활거점인 오산천을 매개로 시민을 만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에 대한 욕구와 이야기를 수집한다.

## Who 누가

- 협력 주체 : 오씨랩(위드인컬처)
- 참여자 : 생활문화 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없지만, 평생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오산 시민 6인.

## When 언제

2022년 10월 -12월

## Where 어디서

오산천 및 오산 일대 지역

## How 어떻게

오산의 상징, 오산천을 오가는 시민 중 약 80명을 만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생활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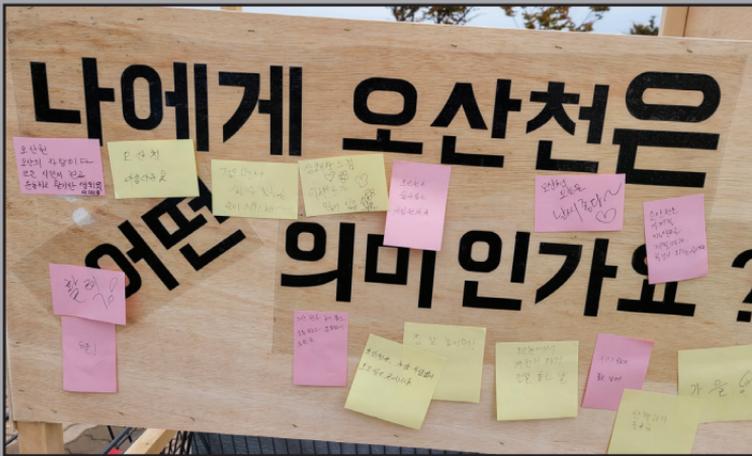
오산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문화란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과 동시에 참여자들도 함께 본인의 생활문화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관찰자의 시선

오산천 인터뷰 사전 논의 현장에서 즉석 섭외된 ‘오산 맥가이버’와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 디자이너의 만남으로 오산천 현장 설치 작업이 이루어졌다. 덕분에 참여자들이 구상했던 그림이 현장에서 멋지게 구현되었다.

프로젝트 비용 지원을 넘어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식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지점!



### ◎ 관찰자의 시선

드디어 오산천에 나가서 시민을 만나던 날, 의외로 오산천에서 만난 이야기 손님은 중년의 남성들이 많았다고 한다.

여성들이 대부분인 생활문화 영역이지만, 앞으로 오산의 생활문화 활동에는 중년 남성들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오산천에 나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 이것이야말로 ‘지역’의 힘.



073





## ◎ 관찰자의 시선

오산천 인터뷰를 계획하는 모임이었다. 활발한 이야기 도중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이 생기면 각자 바로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모두가 오산 지역과 사람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가능한 일이었다.

오랫동안 평생교육 영역에서 활동해왔던 참여자들이 오산천에서 시민들에게 던졌던 생활문화에 대한 질문은 아마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비슷했을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몰랐던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모임 이후의 활동까지

계획하게 된 것은 오산 지역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인이 모였기 때문 아닐까?

활동 자세히 보기 ↙



076



**활짝학교**

---

활짝학교는 생활문화 활동가들의 재교육 및 네트워크 과정. 경기도민들에게는 낯선 장소인 ‘부여’에서 지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참여자들이 자기 주도성을 형성하여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박과 식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 몸 워크숍 등 기본적인 루틴만 제시한다.

그 외 빈 부분은 개인이 기획한 워크숍 주제와 맞게 스스로 채워 만드는 워크숍이다.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부여까지 가는 교통편을 선택하는 것부터 기획의 시작. 부여의 사람, 장소 혹은 어떤 경험이나 퍼포먼스 등 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궁금하고 느끼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것에 집중하여 본인만의 워크숍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 부여를 선택한 이유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기획자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인식을 새롭게 돌아보고 갱신할 수 있는 문화적 장치 중 하나로서, 익숙한 곳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낯선 상태에 놓아두도록 하고자 하였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 중 하나인 부여는,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문제들을 대면하며 문화예술의 고유한 미학적 실천이면서 지역과 삶의 문제를 짚어내며 대안을 만들어가는 운동적 실천의 과정이 쌓이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예술의 경계, 예술가의 경계가 삶의 영역과 생활자의 경계를 넘나들며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생활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어, 경기도의 활동가들에게 지역, 동네, 생활문화가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소재, 대상이 아닌 삶의  
두터움을 어떻게 사유하고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생활문화와 문화기획에 대한 개념과 실행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활짝학교에서 부여의 로컬협력자 <협동조합  
주인>은 기획/운영자, 기록자들, 참여자들에게 보석  
같은 존재였다.

※ <협동조합 주인>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는 사람들을 위한 협력의  
플랫폼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상호연대의 강화를 지향합니다.

↳ [www.socialtrip.co.kr](http://www.socialtrip.co.kr)



## 1차 사전워크숍 ▼

- 10월 17일(월) 오후 2시
-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 1978, 2층 교육실 1
- 활짝학교 소개, 부여 지역 안내&이슈 공유  
(노재정 | 협동조합 주인 이사장), 이후 일정  
안내

## 2차 사전워크숍 ►

- 10월 24일(화) 오후 2시
- zoom으로 만남
- 1차 사전워크숍 이후 각자 알아본 부여와  
각자가 기획한 워크숍의 주제, 방식 교통편 등  
여정에 대한 공유

**떠나는 워크숍 기획 ▶**

- 1, 2차 사전워크숍을 통해 각자 자기만의 2박 3일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
- 기획을 위한 모든 과정은 노션(notion)에 기록해 공유, 서로의 기획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함께 떠나는 워크숍 ▶

### 상황의 변수 ▶ 맥락의 변화 ▶

- 기존 떠나는 워크숍(10. 31-11. 2)이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참사로 부득이하게 취소
- 워크숍을 떠나기로 했던 10월 31일에 참여자 모두 함께 zoom 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활동에 대한 고민을 나눔.
- 어떤 이유이던 기존의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기획자들에게는 자주 벌어질 일, 워크숍의 맥락이 바뀌었다고 해석하고 추후 일정에 대해 모두가 함께 논의
- 함께 떠나는 워크숍에 대한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일정이 가능한 참여자들 개별로 떠나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함.

### 개별의 떠나는 워크숍

- 11명의 참여자 중 6명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개별로 떠나는 워크숍을 다녀옴. 개인이 따로 다녀온 워크숍이었지만, 일정이 겹치는 사람들은 부여에서 만나기도 하며 따로 또 같이 워크숍을 진행함.





계획할 때부터 시작된 여정, 획기적인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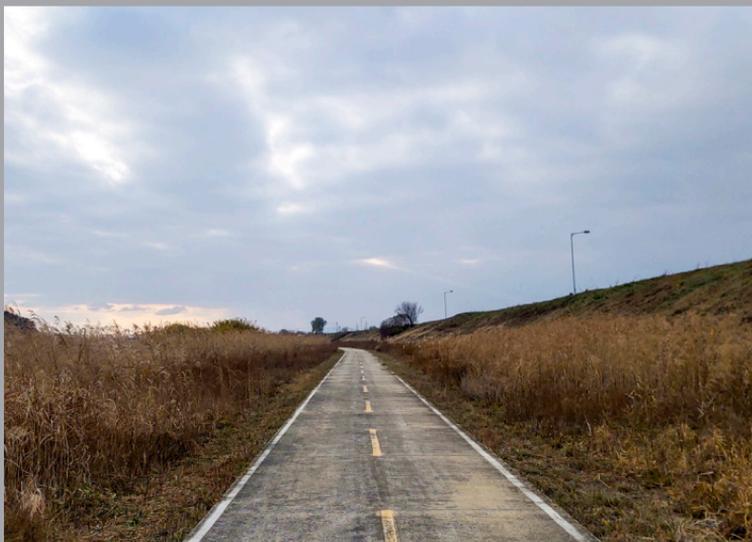




맞닥뜨리다 : 걱정수집여행

♥걱정수집

	걱정거리	결과
11/4	일정 정하기 고민... 다른 일정이 생기면 어쩌지..	다른 일정 없음
	근데 이걸 왜하지... 가서 별로 재미 없으면..	안갔으면 후회할텐...
	숙소... 방... 어쩔...	숙소 잘 썼음
11/6	주제가 너무 나한테 집중되었나?	집중해서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
	테미널 주변 시장..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되나?	그전에 대목장이 있어 더 한산했고 일요일보다 평일에 사람이 더 있음
	별로 의미없는 여행이 되면 어쩌나	다녀온것 자체로 의미
	내일 영상 찍으려면 어딜가나...	정리사지 잘 다녀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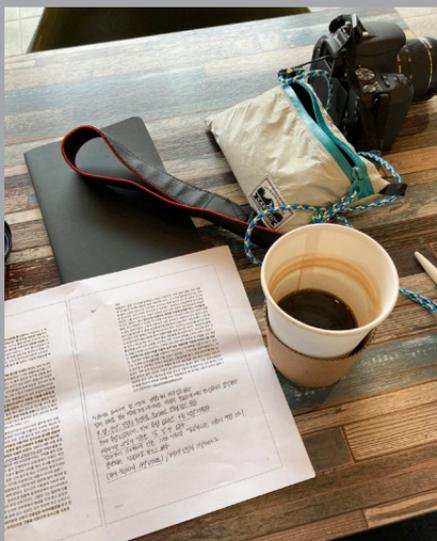
송재형

부여에서 옛 부여의 사람들을 상상하다.



11. 13 - 14 / 1박 2일

활짝학보



---

Dear. 안도 다다오 프로젝트

---





방영경

부여에서 레트로 시간



11. 13 - 14 / 1박 2일

092



**통합 공유회**

---

서로 궁금했던 똑똑, 활짝학교 참여자들이 모두 모여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 이후 계획을 나누는 자리.

#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24일(목) 오전 11시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1978, 2층 교육실 1

095

## 모인 사람

### 똑똑학교 참여자

→ 오산천로 오늘은

정해원

박혜정

노영현

박성희

공혜련

→ 같이 삽질할 사람, 땀!

유자

홍우일

### 활짝학교 참여자

주현진

오다예

송재형

박경민

방영경

김최미

이지영

# 통합 공유회, 말말말!

통합 공유회에서 참여자들이 했던 이야기 중 곱씹어 볼만한 이야기들을 발췌했다.

“

사업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보면 처음부터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열 번 정도 만나 이야기하다 보니, 이 타이밍에 아카데미가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초반에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궁금한 지점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 이후에 아카데미 형식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무조건 교육을 먼저 넣는 건 결과적으로 남는 사람이 없다.

우리도 처음에 모르는 사람끼리 뭉쳐서 활동을 했는데,  
결과는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

활동이 끝나더라도 동아리를 만들어 발전을 하기로 했다.

”

뚝뚝학교 <오산천로 오늘은>  
기획자 정해원

“

뚝뚝학교를 통해 느꼈던 것은 모르는 사람과 같이  
'문화'라는 단어 하나로 친구가 되었다.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주거나 받거나 친구가  
되었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생활문화는 이렇게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들을  
만날 때도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했다.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진정한 문화가 아닐까,  
소중한 경험이었다.

”

뚝뚝학교 <오산천로 오늘은>  
기획자 정해원

“

남의 두려움을 함께 경험하며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해 보는 것.  
 서로 응원도 해주고 새롭게 생각도 전환해 보는 사업을 진행했다.  
 사실 생활문화에 대해 고민을 잘 안 해봤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생각했다. 영화, 운동, 이런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4회차를 진행하며 느낀 건 '누구'와 하는지가 중요했다.

하면서 즐거움이 가득했다. 바라보는 입장에서 사업의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나도 함께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다. 참여자 뿐만 아니라  
 기획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

뚝뚝학교 <같이 삽질할 사람, 땀!>  
 기획자 유자

“

사람마다 나에게겐 일상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일상이 아닐 수 있듯. 어떠한 소재도 생활문화가  
될 수 있겠다 느꼈다. 다른 사람의 기획을 함께  
해보며 하나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

똑똑학교 <같이 삽질할 사람, 땀>  
참여자 홍우일

“

참여자 모두가 호스트가 된다는 경험이 중요한 듯.  
보통은 참여자와 기획자가 분리되어 있다. 그 구도가  
참여자로 머무르게 되면 활동에 고민하고 의도했던  
것에 대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각자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남의 것을 잘 봐야 내 것을 잘 할 수 있다.

”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  
총괄 기획 및 디렉터 임재춘

“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 목적이 되어 무언가  
해봤다는 것이 좋았다. 획기적인 판짓.  
즐겁고 행복했다.

”

활짝학교  
참여자 이지영

“

아이와 함께 다니면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물어본다. 혼자 갔더라면  
못 봤을 것들을 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달랐던 것 같다.

”

활짝학교  
참여자 송재형

통합 공유회

“

사실 걱정이라고 할 것이 없더라. 계획이 없으니 걱정도 별로  
없다는 걸 알았다. 내 기준과 틀에서 나오는구나.  
걱정이 많이 수집이 되면 그 원인을 분석하려 했으나..  
부여의 여행이 일상의 틈을 벌리는 여행이었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공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부여에  
먼저 몸으로 가서 맞이한 것처럼 사는 것도 몸으로  
맞이하며 살아야겠다. 만남들이 즐거웠다. 관심사  
이야기를 많이 했고, 해소되는 시간이었다. 부여라는  
공간적 시간적 틈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

활짝학교  
참여자 오다예 <걱정수집 여행 기획>

“

리서치의 힘이 컸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리서치를 하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았다.

105

”

활짝학교  
참여자 박경민 <Dear. 안도 다다오 프로젝트 기획>

통합 공유회

“

짧게 하루를 보낸 나로서는 시간이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너무 바쁜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럴까. 가서도 거기서의 시간을 집중하지 못해 마음이  
졸여졌다. 당장 변화된 건 없지만 내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는 생각. 돌아와서 만나는 일상의 장소에서  
부여가 다시금 느껴졌다.

”

활짝학교  
참여자 방영경 <레트로 시간 기획>

“

우리가 서로 웬지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친구, 이웃이 되는데 필요한 절대적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다. 활짝학교 참여자들의 경우는 기존에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서로를 잘 모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의 관심에 대해 알게 된 것 같다.

서로를 알아채는 경험 때문에 생활문화 활동을 하게  
 되는데, 돌이켜보면 그 방식이 서로 거리를 두고  
 만났다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만났던 것 같다.  
 서로를 알게 된다는 정서가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  
 총괄 기획 및 디렉터 임재춘

“

일단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걸 더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활짝학교 참여자들이 부어를 개인의 시선으로 다양하게 바라본 이야기를 들으며 의정부를 개인의 시선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기획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똑똑학교 <같이 삽질할 사람, 땀!>  
기획자 유자

“

지역의 관계 맺기에 대해 생각을 했다. 오산은 풀뿌리에서 만들어진 무형의 관계망이 있다. 특히 평생교육도시라고 해서 평생교육망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그분들과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이와 같은 기회가 생기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정서로 봤을 때 오산은 가능할 것 같다.

”

뚝뚝학교 <오산천로 오늘은>  
기획자 정해원

110



디자인

“디자이너는 상황으로부터 단절되어  
패키지화된 디자인을 공급하는 직능이 아니다.

디자인은 지능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찾아내는 감성과 통찰력이다.

디자이너는 본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디자인으로  
치료하는 의사와 같다.”



『디자인의 디자인』  
하라 켄야 Kenya Hara, 2007

사업 홍보를 위한 디자인(포스터, 브로슈어 등등)의 영역을 넘어 경기 생활문화학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해 디자이너 그룹이 결합했다. 이를 위해 사업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디자이너 그룹이 합류,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 전반의 기획과 흐름의 이해를 공유했다.

이렇게 결합한 디자이너 그룹은 사업 전반의 그래픽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위한 별도의 여력이 없었던 똑똑학교 오산팀의 프로젝트에도 투입되어 설치작업을 지원했다.

디자인팀이 직접 기록한 고민의 흐름과 과정을 공유한다. 더 자세한 내용과 이미지는 웹에 공유한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다.

\*책의 맨 뒤 장의 QR코드로 이동!

## 8월 29일(월) #첫 미팅!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와 참여 역할 확인

일반적인 형태의 홍보물 뿐만 아니라 비닐 작업물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홍보물 제작이 재미있을 것 같았다. 뭔가 친밀한 것 같으면서도 아리송한 ‘생활문화’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생활문화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똑똑학교와 잠시 멈춤을 위한 활짝학교에 필요한 홍보물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 9월 10일(토) #디자이너 그룹 결성

경민, 디자인 작업 참여 확정!

그래픽 작업을 위한 디자이너(경민)의 합류로 그룹이 결성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공유하고 다음 미팅 전까지 각자 리서치 및 아이디어 수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동료 덕분에 디자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줄고 마음은 든든했다.

# 9월 18일(일) #Zoom 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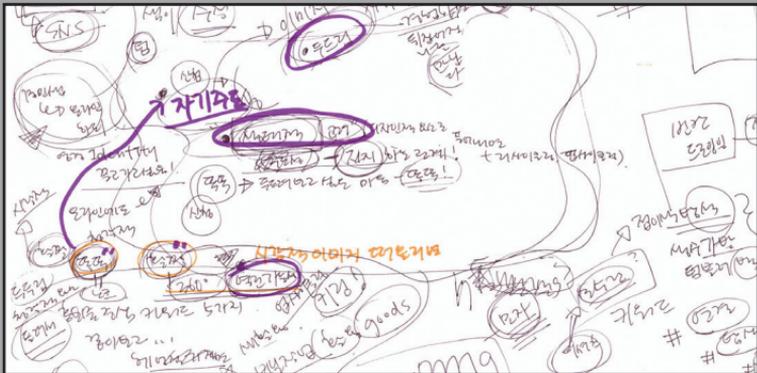
경민&영경

115

20일로 디자인 초안 공유 미팅 일정이 정해져  
디자이너 그룹은 사전에 줌으로 만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유 받은 문서 내용을 살펴보며  
핵심 문장과 키워드를 정하고 전반적인 포스터  
작업을 위한 디자인 콘셉트를 정리해 보았다.



#두드리고 뒤집어 본다 #전복 #데칼코마니 #만남, 만나기  
#자기 주도 #생태적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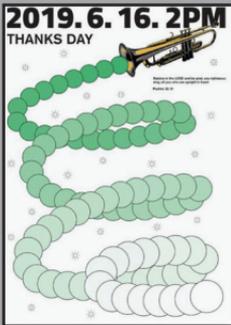
▲ 미팅하며 남긴 낙서 기록

디자인

# 9월 20일(화) #Zoom 미팅

1차 디자인 초안 공유 회의

→ 아이디어 스케치, 리서치 이미지 공유하며 디자인 방향 설정



▲ 똑똑&활짝학교 참고 이미지 리서치 [출처: Pinte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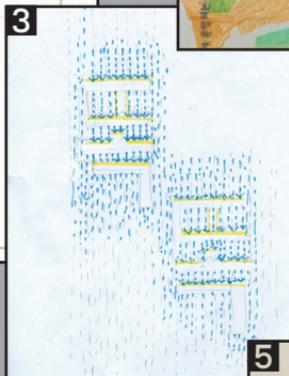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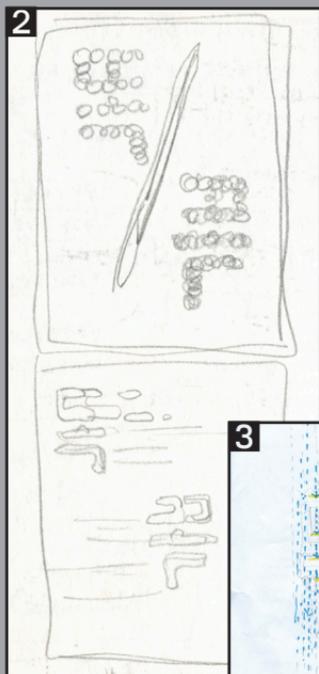
# 똑똑학교 포스터 Thinking

그룹으로 같이 하는 디자인 작업은 처음이었지만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스케치로 제안을 주고받으며 디자인을 구체화해 나간 과정이 좋았다. 각자의 이해를 확인해가고 응원과 지지를 주고받으며 즐겁게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었다.

- 생활문화가 궁금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활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과정
- 주제 : 문화적 시민이 된다는 것에 관한 대화



#자기 배움의 설계와 실행 #자기주도 #두드림 #노크  
#두드려보고 싶은 마음 #설렘 #선순환 #만남  
#만나기 #물방울의 똑똑 떨어짐



▼ No. 5 두드리는  
형상의 손 사진 촬영

▲ No. 1-4 아이디어 스케치

# 똑똑학교 포스터 완성



◀ 똑똑학교 '의정부' 홍보시 사용된 디자인



똑똑학교 '오산'  
홍보시 사용된 디자인 ▶

## <오산천로 오늘은> 홍보물 제작 과정

오산천 이야기-날것의 시민, 오산천을 매개로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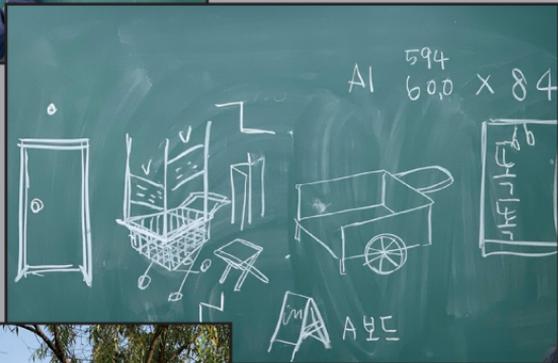
똑똑학교의 두 지역, 오산과 의정부에서 각각 어떤 활동을 준비하시는지 궁금하던 차에 오산팀의 회의에 함께했다.

회의를 통해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도 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쉴 새 없이 이어진 이야기들은 주제를 벗어났다 다시 돌아오길 반복하면서 어느덧 결론에 이르렀고 그 과정이 무척 신기했다. 서로 서로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의 긍정 파워가 느껴졌다.





▼ 오산팀과 회의 때 나온 설치물 아이디어 스케치



▲ 오산전에 설치된 카트 활용 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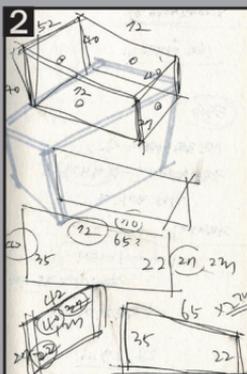


## <오산천로 오늘은> 홍보물 작업 후기

오산의 맥가이버 선생님께서 제작해 주신 특별한 카트와 문이 오산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인사와 함께 질문을 건넸다. 카트에 적힌 질문을 통해서는 오산천의 의미와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홍보에 사용된 구조물의 선택이 자전거에서 리어카로, 리어카에서 또 카트로 논의의 흐름에 따라 결정되어 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카트 아랫부분의 비닐 포스터 크기가 조금 커져도 좋았을 것 같고, 깃발 등 조금 더 시선을 끌 수 있는 요소가 더 배치되었어도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 No. 1-2 카트 활용 홍보물 아이디어 스케치 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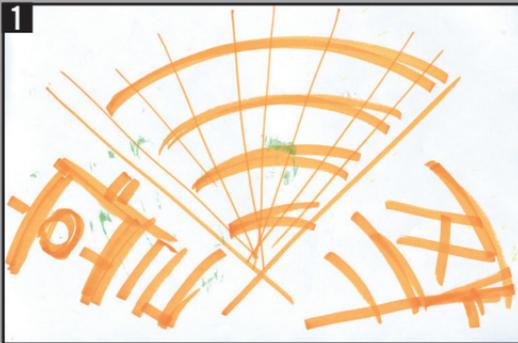
▲ 아이디어 스케치 초안을 바탕으로  
그린 카트 예상 조립도

# 활짝학교 포스터 Thi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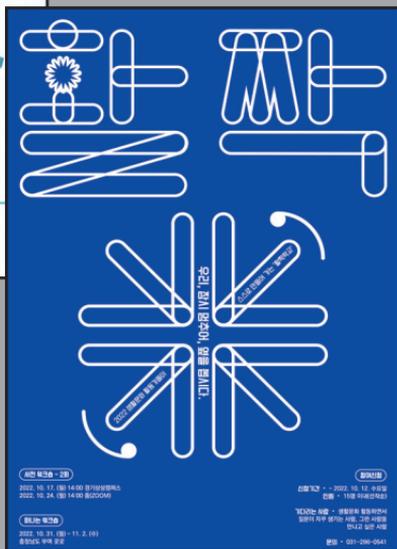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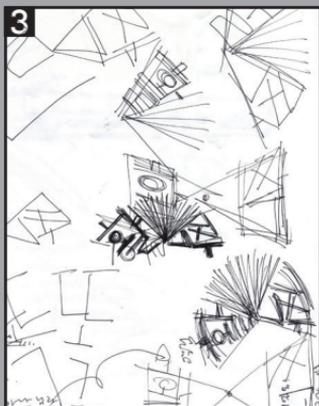
- 도내의 생활문화 활동가들의 재교육 및 네트워크 과정. 관점, 방식, 관계 등 돌아봄.
- 주제 : 잠시, 멀찍이 놓아두기
- 디자인팀 회의에서 나온 ‘360도 열린 가능성’이라는 말에 꽂혀 그 후로는 뭔가 계속 펼쳐지거나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담아보고자 함



#360도 모두 열린 가능성 #만나기 #만남  
#자기 주도성 #관점의 전환 #역전 가능성



# 활짝학교 포스터 완성



▲ No. 1-3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포스터 디자인 완성

▲ No. 1-3 아이디어 스케치

126

10

축척되는 경험이  
되기 위한 제안

누구나 예술가라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예술이라 칭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술을 일상의 영역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관람객, 청중 등으로 호명되던, 단순히 참여자로서의 시민이 아닌 예술의 행위 주체로서 시민을 인식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진보를 가늠하는 몇 가지 변곡점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문화정책으로서 생활문화는 문화예술교육과 더불어 이 변곡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적 가치, 예술의 의미, 공공성과 시민, 지역 등 생활문화와 밀접한 단어들을 곱씹어 보자니, 이제는 일상이 된 전염병과 기후 위기, 전쟁과 세대 대립, 가치 갈등, 낮은 젠더의식, 혐오에 기반한 정치문화와 사회제도의 탈 포용적 현상들, 효율과 가시성 우선주의 뒤에 숨은 시혜적 태도와 관료주의 등 위험한 것들이 더 먼저 떠오른다.

첨예한 질문과 사유, 이의 실천의 장으로서

문화예술이 가진 시대적 맥락이 가볍지 않다는 말이다. 그동안, 그리고 여전히 생활문화를 의미화하는 많은 부분들이 문화예술의 이러한 맥락과 다소 동떨어진 채 우리 각자의 존재, 시민으로서의 존재가 제도적 성과의 쓸모로 더 교묘하게 동원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각성의 경험, 각성의 기획이 우리에게, 삶의 순간으로 마주하고 목격하는 일이 매우 절실했다.

덕분에 2022년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의 방향성이 선명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앞 부분을 할애하여 언급한 많은 내용을 통해 그 사유의 배경과 경과를 밝혀 두었다.

이것은 그다음에 대한 바람이다.

# 현장의 탐색과 발견, 연결

시혜적 입장에서 조금 벗어나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현장이 많지 않다는 것은 오래된 현실이다. 시간이 많지 않은 탓일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다고 해도 독립적인 시선에서 자기(지역, 문화적, 의미적) 그라운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를 가진 현장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광역 재단으로서 경기문화재단의 중요한 정책적 역할이기도 한 ‘현장과 주체를 찾는 일,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일’은 경기도 생활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첫 번째 의제다.

# 출발선이 다름 현자들

똑똑학교를 통해 시도한 현장의 작은 실험은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늠하는 경험을 선사했다.

문화도시사업, 각종 시민문화사업을 통해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지만, 경기문화재단의 똑똑학교를 통해 문화적인 사유와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더듬을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생겼다.

사유의 여지는 지역 상황, 이전의 경험, 현재 삶의 욕구, 함께 움직이는 사람 등에 따라 매우 달랐다. 이 다름을 존중하고 섬세하고 다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정책’과 기획적 감각이 병행됨으로써 ‘여지의 성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진부한 것들과의 결별

어쩌면 이것을 통해 생활문화가 시민단위의 실천적 예술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개인, 개별적 차원의 관성과 사회적 규범이나 관례로서 은연중에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음으로써 이 관례를 강화해올 수밖에 없었던,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들과 어떻게 거리를 둘지, 이를 응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지 기반으로서 똑똑학교와 활짝학교의 의미와 성과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 시간과

가장 큰 아쉬움은 ‘시간’과 ‘속도’이다. 정책으로서든, 사업으로서든 생활문화,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의 대안과 가능성 역시 시간과 속도라는 운영의 호흡, 시선의 길이와 깊이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돌이켜보면, 주어진 시간 동안 질문의 농도를 유지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별적 알아차림의 총합이라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가진 모순을 모른척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삶은 늘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특히 다원적인 상황과 가치관들의 복잡한 한 가운데가 아닌 적이 없지 않은가. 실천이라는 것은 완벽함이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의도와 시도라는 행위, 그리고 그 경험으로 우리 각자가 조금 더 자기다움, 스스로에 다다를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음이다.

**함께한 사람들**

## 2022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

기획 및 디렉팅	임재춘
디자인	박경민, 방영경
기록	나하나
지역협력   오산	오씨랩(위드인컬처)
의정부	스무살이 협동조합
부여	협동조합 주인
경기문화재단   사업총괄	문화예술본부장 주흥미
사업운영	생활문화팀장 최진호
사업진행	생활문화팀 안혜진, 김소정

2022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

더 자세히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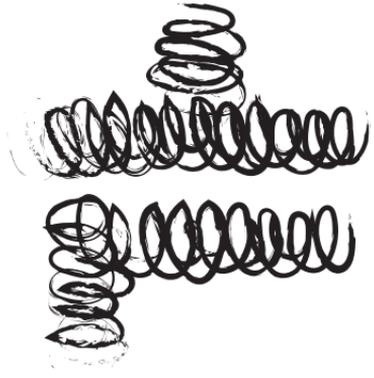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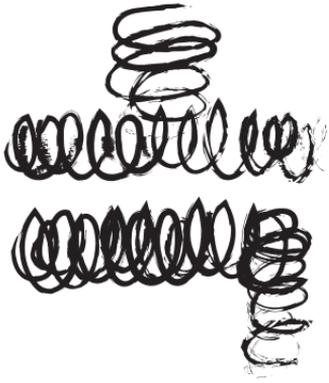
# 똑똑&활짝학교 책책책

2022 경기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 활동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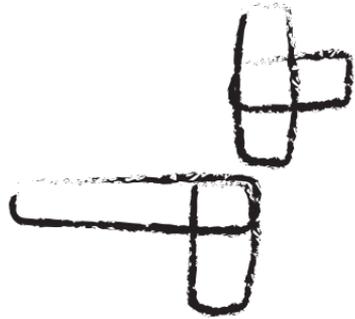
기획	임재춘
글 구성 및 편집	임재춘, 나하나
디자인	박경민
협력	방영경
경기문화재단   사업총괄	문화예술본부장 주흥미
사업운영	생활문화팀장 최진호
사업진행	생활문화팀 안혜진, 김소정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일	2022. 12. 26



본 책자는 친환경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2022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 활동가 학교 활동 기록